



# 독학으로 일군 화풍... 이 땅의 생명 공간 품다

제주 원로 고영만 화가  
제주미술협회서 화집 엮어  
도판에 평론·회고 글 더해  
80년대 독창적 침선기법 등  
4기에 걸쳐 작품 세계 소개



고영만 화백.

주민등록상엔 1940년생으로 올라있지만 실제 그는 1936년 제주시에서 태어났다. 어릴 적 부모를 잃고 전쟁고아로 보육원에서 생활하며 학교를 마쳤다. 초등 교사로 14년을 근무했고 중등교사 자격시험을 치러 1974년부터 2000년까지 미술교사로 재직했다.

화가 고영만. 그는 오로지 독학으로 미술 공부를 하며 스스로 화풍을 개척했다. 아카데미 교육에서 볼 수 없는 창의적인 그림들을 그릴 수 있었던 이유다. 그래서 그의 스승을 '제주'라 불려야 하지 않을까. 제주의 전통 민구류, 사라져가는 조가와 마을, 어머니, 자연과 생태 파괴, 생명·공간에 대한 안타까움을 화폭에 불어넣었다. 교직에서 명예퇴임한 뒤에는 제주신화가 그의 그림 주제가 되었다. 읽는 신화에서 보는 신화로 제주 신들의 모습을 불렀다.

제주미술협회(회장 강민석)가 제주문화예술재단의 원로예술인지원 사업으로 그의 생애와 작품 세계를

담아낸 화집을 묶어냈다. 그의 호를 딴 '나현(羅玄)고영만-생명, 자연 사랑'이란 이름을 단 화집은 김유정 미술평론가가 책임연구원을 맡아 총평, 평론·회고의 글, 작품 도판, 보도자료·사진, 논고, 연보 등 250여쪽 분량으로 제작됐다. 김원민·김유정의 평론에 더해진 김택화·부현일·김원구·홍진숙 등 제주 작가와 동생인 화가 고재만이 쓴 회고의 글은 그의 인간적 면모까지 살필 수 있도록 이끈다.

화집에 실린 도판은 1960년대 이후 최근까지 제작된 유화 295점 등 327점에 달한다. 김유정 평론가는 총평에서 고영만 화가를 '홀로 핀 갯속부쟁이'에 비유했다. 바닷가의 혹독한 환경을 견디고 8~11월 보랏빛 꽃을 피워내는 야생화의 생태가 인생의 찬 바람을 견디며 우뚝 선



고영만의 대표작 중 하나인 '생명공간 14'.

작가의 모습과 닮았기 때문이다.

김유정 평론가는 수록된 도판을 중심으로 고영만 화가의 작품 세계를 4기로 구분했다. 초등교사 시절이던 1기, 중등 미술교사가 된 1970~80년대(2기)를 지나 80년대 말(3기)에 질적 변화가 생긴다. 이 시기 작가는 생태계 파괴를 그림에 담아냈고 다 쓰고 난 물감튜브 등에 유채물감을 흔들어 넣고 니들펜 쪽지를 장작해 손가락 힘으로 짜내면서 표현하는 독창적인 침선(針線) 기법을 선보인다. 다시 붓 작업으로 회귀한 뒤에는 암울한 제주 환경을 고발

하는 작품을 펼친다. 2000년대(4기)에 이르러 생명·공간, 어머니, 제주도의 신들이 주로 등장한다.

고 작가는 3일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제까지 그림을 그려오면서 보람으로 여기는 것은 다른 작가의 표현방식을 피하려고 침선기법을 개발해 침선유채화를 그려서 몇 작품을 남겼다는 것이고 나이프 터치 기법을 병용해 남다른 표현을 시도했다는 점"이라며 "내 작품에 내재한 의미는 환경정화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은 '생명, 자연 사랑'이라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 도립미술관 미술연구센터 설치 주문

“아카이브 전담 인력 확보  
미술사 자료 유실 막아야”

작고 작가인 양창보 문기선, 현존 작가인 부현일 고영만. 제주문화예술재단 아카이브 지원 사업을 통해 화집을 엮은 제주 미술인이다. 3일

제주미술협회 주관으로 예술공간 이아에서 열린 원로예술인 고영만 화집 출간 기자 간담회에서는 이들 사업의 과제가 잇따라 제기됐다.

한리일보 지면을 통해 제주도립미술관에 가칭 '제주미술사정립 소위원회' 설치 필요성을 밝혔던 김유정 평론가는 '미술자료연구센터'가 조

성돼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그는 "도립미술관에 제주 미술인 자료 수집, 소장, 연구를 위한 조직이 있어야 한다"며 "전담 인력을 확보해 아카이브 구축 사업에 나서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그는 지원 예산이 전년에 비해 감액된 점을 들며 "제주 미술의 위상에 비해 제주 작가들을 소홀히 취급하고 있는 것 같다"는 아쉬움도 덧붙였다. 전선희기자

교수는 "선정 여부가 불투명한 공모 방식이라 단체에서 장기적으로 미술사 정립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어렵다"며 사업 방향 재고를 요청했다. 강교수는 특히 "도립미술관, 공공수장고 등 전문기관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에 맞춰 역할을 세분화하고 연구 기능을 확대해야 할 것"이라며 "미술품만이 아니라 각종 기록, 메모 수집 등 더 늦기전에 제주 미술사 자료 유실을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전선희기자

‘빛의 마술사’ 제주 온다  
본태박물관 터렐관 개관

본태박물관(관장 김선희)은 개관 7주년을 맞아 이달 6일 ‘빛의 마술사’로 불리는 제임스 터렐 전시관을 개관한다.

1943년 미국에서 태어난 제임스 터렐은 1960년대 발생한 ‘빛과 공간 미술운동(Light and Space movement)’의 선두 작가다. 인지심리학을 전공한 그는 작품을 통해 시각 자극을 박탈했을 때 환각을 보는 현상을 뜻하는 심리 용어인 간츠펠트(Ganzfeld) 효과를 경험하도록

록 유도하며 관람자의 감각과 현실감을 의심하도록 이끈다. 제주에는 초기 작업인 ‘오르카, 블루(Orca, Blue)’가 설치된다. 터렐이 빛의 발견을 탐구하기 시작했을 때 나온 프로젝트 시리즈 중 하나다. 통제된 두개의 빛을 공간의 반대쪽에 비추 만들어지는 프로젝션 작품은 빛

이 공간을 점유하는 설치물이다. 밖에서 빛이 어떻게 들어오느냐에 따라 작가의 생각과 예술적 경험이 만나며 공간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부여한다. 관람 가능 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문의 064)792-8108. 전선희기자 sunny@halla.com

## 고재만의

### 제주어기법한판

<181>

구성: (사)제주어보전회  
<재민그림글자 응용>



좁네 곤기를, “망태이야- 요맹이야 ㅁ자 쉼 물 안 맥어시냐? 혼저 쉼 물 맥영 오라게 홀일이 핫저. 솟도 시쳐사 ㅎ곡 모뎀도 꼴아사 ㅎ곡.” 망태이 꼴았저, “아고! 꼴체가 이디 셔낫구나게. 망태이도 이신게. 이게 하르바지가 걸인놔둔 땡이로구나. 응 보난 장평인게. 이걸 어뎡 잡아사 ㅎ코? 하르바님신디 도웨도랜 ㅎ카? 아니여 쉼 물 톨침 맥어뎡 ㅎ어사주. 꼴체나 ㅁ정 재기 갓당 와사겨.”  
좁네 꼴맨, “꼴체 무신거 ㅎ체 ㅎ업다? 쉼 물 맥영 올 때 삼춘집에 들렁 지실이나 꼴체에 담양 오라-.”

#### \* 제주어 풀이

- \*곤기를 : 말하기를 \*ㅁ자(ㅁ재, ㅁ재, ㅁ자) : <어찌>아직. 여태까지. \*시쳐사 ㅎ곡 : 씻어야 하고.
- \*모뎀 꼴아사 ㅎ곡 : 메밀을 갈아야 하고. \*꼴았저 : 말하네. \*꼴체(꼴체) : <이름> 삼태기. 재료에 따라 '너뎡-, 꺾-, 착-, 대-, 줄-' 따위가 있음.
- \*망태이(망대기, 망대, 망태이, 맹태이) : <이름> 주로 곡식 따위를 담아두거나 담아 나르거나 할 때 쓰려고 짚을 곁게 엮어 만든 망태. 용도나 크기에 따라 이름을 다르게 부르기도 함. '밀망태이, 착부지' 따위.
- \*응 보난 : 이렇게 보니깐.
- \*꼴체나 ㅁ정 재기 갓당 와사 : 삼태기나 가지고 열면 갓다 와야.
- \*꼴체 무신거 ㅎ체 ㅎ업다? : 삼태기는 뭘 하려고 하니?

—부호·<이름>·이름씨(명사)/<그림>·그림씨(형용사)/<음역>·음역씨(동사)/<어찌>·어찌씨(부사)/<대어름>·대어름씨(대명사)/<꺾>·꺾씨(수사)/<느낌>·느낌씨(감탄사)/<도>·도씨(조사)/<메소>·메소씨(조사)/<약은말>·약은말씨(속담)/<속담>·속담 (출처: '제주말 큰사전' 송상조, 한국문화사, 1991)

## 문화가 쏘지

### 현인갤러리 서경희 초대전

서경희 작가가 제주 현인갤러리 초대로 바다 이야기를 풀어내고 있다.

서경희 작가의 화면 안에는 화려한 산호초들이 군락을 이루며 춤을 춘다. 자연에 대한 관조를 넘어 우리와 함께 숨쉬는 역동적인 바다를 그려냈다. 이달 7일까지. 문의 064)747-1500.

### 꿈꾸는 그림동화 원화전

제주 마주보기동화그림회(회장 손지혜)가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서 '꿈꾸는 그림동화' 원화전을 열고 있다.

이달 8일까지 계속되는 전시에는 김혜숙, 우지영, 손지혜 회원이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린 동화와 김명랑, 김우주 회원이 동시 등을 읽고 그림을 그린 40여점을 선보인다.

### 제주기독사건가협회 전시

제주기독사건가협회(회장 문창규) 제9회 회원전 '종소리'가 이달 5일까지 문예회관 1전시실에서 열린다. 지도위원 김남규 사진가와 고봉춘 회원 등 15명이 지나는 시간 속에 자리했던 아름다운 순간 등을 포착해냈다. 문의 010-4696-0465.

후원: **강원도** **플라이강원**

# 제주-양양 취항 기념

★ 4인 이상 출발 보장

**출발일: 매주 화, 금, 토**    **일정: 1박2일, 2박3일**

**1박2일**    **화요일 ₩279,000 / 토요일 ₩299,000**

**2박3일**    **화요일 ₩369,000 / 금요일 ₩399,000**

※ 연휴기간 12/24 ~ 1/1, 1/24~27(별도요금적용됩니다)

**(1박2일 일정)**    ※ 토요일 일정은 항공시간에 따라 일부 조정됩니다.

1일: 제주-양양공항-이비리마을-중식-고성통일전망대-화진포생태박물관/김일성/이승만/이기봉별장-속초소수시장-호별

2일: 설악산국립공원-관음성케이볼카-신홍사-흔들바위-중식-낙산사-영양공원-제주도착

**(2박3일 일정)**

1일: 제주-양양공항-이비리마을-중식-고성통일전망대-화진포생태박물관/김일성/이승만/이기봉별장-속초소수시장-호별

2일: 설악산국립공원-관음성케이볼카-신홍사-흔들바위-중식-낙산사-오죽헌-강릉중앙시장 월화거리-호별

3일: 정동진모래시계-센크루즈조각공원-부채길탐방-중식-커피거리-동계올림픽파크-영양공원-제주도착

포함사항: 왕복항공료, 호텔(2인1실), 조식/중식, 관광지 입장료, 가이드, 여행자보험, 전용차량    불포함사항: 석식, 가이드봉사료(1일1인당 5천원), 기타개인비용

**예약문의**    **퍼시픽투어 747-8099**    **가자항공여행사 744-6068**